

열네번째 메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 왔다. 어떻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쳤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 돌아왔을까? (창 32:10) 삼촌 ‘라반’ 의 집에서 살며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부’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물질의 부유함’ 으로 결코 해결 할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예물로 주고 그 댓가로 형 ‘에서’ 가 자신에대한 감정을 푸는 도구로 사용 했다.야곱이 형과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 것을 볼때 ‘에서’ 는 하나님 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했고 세상적이었음이 분명하다.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물질로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와의 꼬인 인간적 관계가 해소 되었어도 야곱이 결코 해결 할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내면속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내면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 에 사로잡힌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을 살아 가는 당신과 나에게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 에대한 두려움때문에 모든 가족과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보내고 난후 ‘얍복 나루에 홀로 남았다’고 말씀한다. (창 32:24) 도대체 ‘얍복 나루’ 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얍복 나루’ 는 반드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야만 하는 곳이다. 영적으로 볼때 변화의 지점이 분명하다. ‘얍복 나루’ 의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

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때가 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야 한다는 것’ 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뜻은 나 자신 중심의 세계와 하나님 중심의 세계와의 싸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압복 나루’ 는 내 마음속의 전쟁터와 같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 했다는 뜻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d야곱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었던 원인은 자신의 신앙의 능력 때문이 아니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 일까? 당신은 자신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한적이 있는가? 악한 나 자신안에서 선한 나 자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의 본성’ 과 ‘선한 하나님의 본성’ 과의 싸움은 항상 치절하다. 야곱은 결국 자신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 했다. 더이상 인간의 본성인 ‘야곱’ 은 없어지고 새로운 야곱 ‘이스라엘’ 이 탄생한 것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하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하며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성경공부를 착실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가 자신이 평생 모아둔 재산을 포기하며 구한 것이 무엇일까? 진실로 다시 태어 난 것이다. ‘삭개오’ 도 ‘죄의 본성’ 을 가진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얻은 하나님의 선한 본성사이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분명하다.(눅 19:8-9) 당신의 ‘압복 나루’ 는 어디였는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혹은 ‘야곱’ 처럼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라고 외칠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당신과 나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원한다.

